5월 단체들 하나로 뭉치나

DJ 서거 계기 공법단체 설립 등 급물살

내년 30주년 기념행사 대책회의도 계획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 '조문 화해'<본보 21일자 6면 보도> 이후 5월 관련단체 사이에 화합과 소통의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다.

옛 전남도청 별관 철거문제로 극심한 분열상을 보여왔던 5월 관련단체들이 5·18 민중항쟁 30주년 기념행사를 앞두고 대책 회의를 열기로 한 것이다.

특히 5월 단체 통합을 위한 공법단체 설립에 대해서도 서로 공감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24일 (사) 5·18 민주유공자유족회와 5·18 부상자회 등에 따르면 이들 단체 대표 및 임원 등은 26일 광주시 서구 치평동 5·18 기념재단에서 5·18 민중항쟁 30주년 기념행사와 관련, 대책 회의를 열 계획이다.

이 같은 일정은 지난 21일 30여 명의 조문단이 김 전 대통령 빈소를 다녀온 직후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추모제 등 5월 관련 단체별로 각자의 행사를 치른 29주년 기념행사 때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다. 이들은 이날 준비위원회 구성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공법단체 통합문제도 급물살을 타고 있다. 양희승 5·18 구속부상자회장은 "회원 모두가 하나의 통합단체로 가는 것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며 "서로 반목과 갈등 관계를 그만 접고 5월의 진정성을 알리는데 모두 동참할 때"라고 말했다.

정춘식 (사) 5·18민주유공자유족회 사무총장은 "옛 전남도청 별관 철거문제와 통합문제, 30주년 기념행사 등 해결해야될 문제가 많다"면서 "이제는 서로 잘잘못을 떠나 화합의 길을 모색해야 할 때다. 좋은 결과가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남악신도시에 '김대중광장' 만든다

하의도·목표 순례지 조성 등 추모 사업 본격화

전남도청이 있는 무안군 남악신도시에 김대중 광장이 조성되는 등 김대중 전 대통령을 기리는 추모사업이 본격화된다.

특히 김 전 대통령의 고향인 신안군 하의도와 김 전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인 목포를 연계한 민주주의 순례지 조성도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박준영 전남도지사는 24일 "김 전 대통령의 서거를 계기로 전남도청 앞 공원조성 예정지에 김대중 광장을 조성하고, 현재 진행중인 생가 주변 정비사업과 목포 노벨기념관 건립도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지사는 이날 오전 전남도청 브리핑실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김 전 대통령은 생전에 자신을 위해 예산을 사용하는 것을 바라지 않았다"면서 "이 때문에 그동안 관련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지 못했지만, 앞으로 그분의 업적에 걸맞게 추모사업을 벌이겠다"고 말했다.

그는 "목포 노벨 기념관과 신안군이 추진중인 하의도 무궁화 섬 조성과 김 전 대통령 생가 주변에 조성될 노벨 평화공원을 차분하게 계획대로 조성하고, 이를 연계해 우리 국민뿐 아니라 민주주의를 갈망하는 전 세계인들이 찾는 귀중한 순례지로 만들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그동안 정부의 사업 중 우선 순위에서 밀렸던 하의도~신의도 간 연도교 사업의 예산을 올해는 반드시 확보해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내놓았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광주·전남 조문객 40만명 달해

광주·전남지역 50곳에 마련된 김대중 전 대통령 분향소를 찾은 조문객은 40만여 명에 달한 것으로 최종 집계됐다.

24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김 전 대통령 서거 직후 분향소가 설치된 지난 19일부터 23일까지 5일 동안 옛 전남도청과 김대중 컨벤션센터, 동구청, 북구청 등 17곳에 마련된 분향소를 찾은 조문객 수는 총 19만3천90여 명으로 조사됐다.

가장 많은 조문객이 몰린 곳은 옛 전남도청으로 조문객 수는 9만3천300여 명이다. 김대중 컨벤션센터에는 2만4천700여 명의 조문객이 찾았다. 전남지역에는 전남도청과 목포역 광장, 목포상고·전남 제일고 총동문회 사무실, 신안군 하의도 등 32곳에 분향소가 차려졌으며 총 20만1천763명의 조문객이 다녀갔다.

전남도청에 마련된 분향소에는 조문객 9천756명이 찾았으며, 목포 지역 2곳(목포역 광장, 모교인 전남제일고) 1만3천325명, 신안군 하의면사무소 4천520명 등으로 집계됐다.

/이종행 기자 golee@kwangju.co.kr

친환경농업 비중 배로 늘린다

'그린리더' 연내 5천명으로 … 정부 지원도 강화

전남도가 중점 추진해온 친환경농업 비중이 크게 늘고, 이에 대한 정부의 지원도 강화된다.

환경부는 24일 열린 녹색성장위원회에서 범국민 녹색생활운동의 확산을 독려하고자 이 같은 내용의 '저탄소 녹색생활 실천 확산 방안'을 보고했다.

환경부는 우선 가정, 직장, 학교, 군부대 등 10개 분야 80개의 세부 실천사항으로 구성된 '녹색생활의 지혜'를 배포하고 주민참여형 녹색생활 체험 행사를 전개하기로 했다.

특히 일반 가정의 녹색생활과 녹색소비를 촉진할 목적으로 올해 9월부터 각 가정에 '저탄소 녹색생활 양식'을 보급하고, 녹색 식생활 국민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친환경 농산물의 생산 비중이 현재의 5%에서 2012년 9%로 확대되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또 현재 3천600명에 달하는 그린리더를 연말까지 5천명으로, 2015년까지 5만명으로 늘릴 방침이다. '쿨맵시운동'을 전개하고 '친환경운전 10계명' 등 다양한 녹색교통 캠페인을 전개해 직장에서의 녹색생활도 확산시킬 방침이다.

이밖에 자전거 활성화 기업과 사업장을 상대로 포상하고 2010년에 '보행자의 날'을 지정하는 등 걷기 활성화 대책도 추진할 예정이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선진교통문화 정착 MOU 광주선진교통문화 범시민운동본부와 광주 서구청은 24일 서구문화센터 대강당에서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결의대회를 가졌다. 일선 지방자치단체와 협약을 맺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구청과 서부교육청, 서부경찰서, 서부소방서 주관으로 열린 결의대회에는 김양균 대표회장, 길태기 광주지검장, 전주언 서구청장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빛日만평

- 김종두

선생님 따른 저희도 후회 없습니다

식약청 "은나노, 폐·간에 유독하다"

나노입자의 인체 유독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은나노가 폐와 간에 유독할 수 있다는 국내 연구 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에 의뢰해 은나노 입자의 흡입독성을 시험한 결과 동물실험에서 폐와 간에 독성을 나타냈다고 24일 밝혔다. 은나노 등 나노입자는 생활용품과 의료영역에 확산되고 있지만 최근 잇따른 해외 연구에 따르면 나노입자는 인체에 들어온 후 초기에 침착한 장기에서 매우 강한 독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연구에서 흰쥐에 은나노 입자를 90일 동안 공기로 흡입시키고 부검한 결과 암수 모두 폐포염이나 염증성 세포덩어리가 폐에서 발견되는 '육아종성 부위' 등 폐조직 이상이 발견됐다. 실제로 흰쥐들은 은나노 흡입량이 늘어날수록 1회 호흡하는 기체의 양이 감소해 폐의 호흡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됐다.

/연합뉴스

전남 외국인 며느리 증가세 주춤

지난해 1,448명 결혼 … 전년보다 59명 감소

2000년대 들어 급증하던 전남지역 외국인 며느리 증가세가 한풀 꺾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남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전국 최고수준이며, 주요 취업연령은 60대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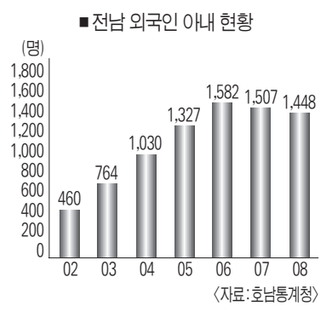
24일 호남통계청이 발표한 '2009년 통계로 보는 광주·전남 여성의 삶'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남의 국제결혼 1천562건 중 한국남자와 결혼한 외국인 여자는 1천448명으로 전년보다 59명이 줄었다. 이는 특히 농촌 총각과 결혼한 '외국인 며느리'가 1천582명에 달해 정점을 이루던 지난 2006년보다 134명 감소한 수치다. 전남 지역 외국인 며느리는 2001년 396명, 2002년 460명, 2003년 764명, 2004년 1천30명, 2005년 1천327명 등 수직 상승해 왔다.

여성가구주 비율은 광주 23.7%, 전남 25.1%로 두 곳 모두 전국 평균(22.2%)을 상회했으며, 전남은 여성가장 비율이 전국 2위였다. 또 전남 여성가구주의 72.5%는 사별한 뒤 홀로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별률이 70%를 넘긴 곳은 전남이 유일하다.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은 광주의 경우 48%로 전국 평균(50%)을 밑돈 반면에 전남은 55.2%로 16개 시·도 중 2위를 차지했으며, 여성고용률도 광주는 46.6%로, 전국 평균(48.7%)에 못 미친 데 반해 전남은 54.5%로 크게 상회했다.

여성 취업자의 경우 광주는 40대(28.2%), 전남은 60대 이상(30.1%)이 가장 많았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여수시 공고 제2009 - 813호

여수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계획(안)공람·공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제7조의 규정에 따른 「여수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계획」수립을 위하여 같은법 제7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람·공고를 실시합니다.

2009년 8월 25일

여 수 시 장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여수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안)
   나. 사업기간 : 2009 ~ 2013(5년간)
2. 주요내용
   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에 관한 사항
   나.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및 보행환경 실태에 관한 사항
   다. 이동편의 시설 개선과 확충에 관한 사항
   라.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마. 저상버스 및 특별교통수단 도입에 관한 사항
   바. 계획의 추진에 소요되는 재원조달 방안등에 관한 사항
3.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2009년 8월 25일 ~ 2009년 9월 7일(14일간)
   나. 공람장소 : 여수시 교통행정과(061-690-2331)
   - 토·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여수시 홈페이지(www.yeosu.go.kr) '고시/공고'
4. 의견제출
   가. 기한 : 2008년 9월 7일(월요일) 18 : 00까지
   나. 보내실 곳
   주소 : 전남 여수시 여수로 1 여수시청 교통행정과 (우편번호 : 555-701)
   전자메일 : shs709@yeosumail.net
   전송(fax) : 061-690-8126

신입 및 경력직원 (건축,토목,전기)모집

1. 모집부분 및 자격

구 분	분 야	인원	해 당 공 통 사 항 등
시공 분야	• 신규 : 건축 • 경력 : 건축,토목, 전기	각 분야 0명	• 신규 : 초대졸이상 • 경력 : 건축(현장경력 3년이상) 토목(현장경력 5년이상) 전기(현장경력 5년이상) • 자격증소지자로써 즉시 현장 투입가능자

2. 제출서류 및 전형방법
   가. 1차 : 서류전형
   나. 2차 : 면접(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개별통보 예정)
   다. 자필이력서, 자기소개서
   (반명함판 사진부착 및 우측상단에 응시분야, 연락처, 희망연봉 필히 기재)
   라. 경력자 : 경력확인서, 자격증사본
3. 제출처및 제출방법
   가. 접수기한 : 2009년 8월 31일
   나. 접수처
   우편번호 502-260
   주 소 광주광역시 서구 쌍촌동 782-8 진흥건설(주)
   e.mail : jhcons@hanmail.net
   문의전화 : 062-374-3511(진흥건설(주) 관리부 인사담당자)
   다. 접수방법 : 우편접수 및 e.mail접수 가능합니다.
   라.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진흥건설(주)

부동산투자클럽 공인중개사무소

(용봉동 하이마트 옆 육교 바로 아래)

매도, 매수 상담환영 ☎ 011-641-0925 062)515-4985

추천 급매물건 - 팬션부지최적

월출산 국립공원 입구 대지면적 7,665㎡ 가든식당 매매 -식당 (연회석 300석 완비 - 피로연, 회갑연, MT최적), 체육시설 (수영장, 족구장), 농장 (맷돼지, 오리, 토종닭), 단란주점, 숙박업 - 현 성업 중, 모든시설 허가필 -매매가 3.3㎡당 32만원-

■고시텔매매■ (금년 5월 준공, 최신시설, 풀 옵션) 대 282㎡ / 건 560㎡ 룸 52 실(룸 당 월 23만원) 전대 후문 건너 체육공원 인근 -매 8억 5천

임 야
▶16,925㎡(계획관리지역) - 나주 남평(중흥스파랜드 입구) - 매 3.3㎡당 8만5천원

대 지
▶683㎡(제 3종 일반 주거지역) - 남구 진월동(광주대 인근) - 매 11억
▶914㎡- 용봉택지지구 현대 3차 앞 - 매 3.3㎡당 300만원

상가주택
▶대 496㎡/건 1487㎡(6층건물)-오치동 아파트단지 입구 -매 17억

※ 사원모집 - 상가 중개, 경매컨설팅 하실분 모십니다.

국토해양부 지정
광주대학교 부동산전문인력교육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교육기관)

◎ 교육명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에 의한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교육(의무교육)]

◎ 모집기간
2009. 8. 10.(월) ~ 2009. 9. 4.(금)

◎ 교육비
67만원 (강의를 시작한 이후 환불은 불가)

◎ 수강자격

구 분	전문인력의 유형
자격자	변호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건축사, 건설기술자, 자산운영관리인력 등
학·석사 학력자	4년제 대학 해당학과 또는 대학원을 졸업하고 개발업법인 등의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등
실무경력자	국가·지자체, 공공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 등 관련기관, 금융기관, 개발업 관련 법인 또는 개인사무소 종사자 등

※ 수강하고자 하는 분들은 등록 전 수강자격 등에 대해 감정원 사무국장에게 문의바람

◎ 2009학년도 교육일정(야간·반반 개설)

구분	교육일정 1차	교육일정 2차	비고
야간반	9/7~10/23	11/2~12/17	월,수,금 오후7시부터 강의시작 (총60시간 강의)

※하루 3시간 강의

◎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자원자에 한하여 국내외 부동산개발 관련 시찰여정(별도비용)이며, 전문가로서 지속적인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관련 회사 및 기관과의 Networking을 형성할 예정임.
◎ 교육장소
광주대학교 [부동산전문인력교육원]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www.grad.kr 참조

광주대학교 부동산전문인력교육원
원 장 이명규교 수 062-670-2421
부 원 장 강동욱변호사 062-233-3119
사무국장 김병철 062-233-3119

당뇨속보
혈당조절이 안되십니까? 당뇨 때문에 불편하십니까?
"인크리스"가 도와드립니다.
특수의료용도등 식품개발 (환자용식품)
생명공학박사가 자신있게 만든 제품!!
▶ 5장 6부를 디스커야 활명감리가 위위집니다.
▶ 혈당관리 조절을 위해 정성껏 만든 환자복용품 식품입니다.
▶ 현재 미국으로 수출 중에 있습니다.
▶ 당뇨인이 편하주시면 "인크리스 설명서에" 와 극복 비결의 안내서를 무료해 드립니다.
김동철 박사(생명공학)
-(주)옥시 개발과장
-대웅제약중앙연구소 선임연구원
-본, 동양정보대 화학과 교수
-본, 루나요트엔이오 대표
상/담/전/화 010-3598-7080,1566-3957